

# “사고의 틀 佛法으로 전환시킨다”

## 안동 보경사 정해학당 2박 3일 겨울수련회

안동 보경사(주지 오경) 정해학당은 2월 7~9일 2박 3일 동안 24시간 릴레이 강의로 유식 30송 풀며 겨울 수련회를 진행한다. 3시간 연강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하루 3강, 총 9시간을 강의 듣고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형식이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도 결코 만만한 수련회가 아니다.

주지 오경 스님은 “삼천배, 철야 정진으로도 깨부수기 어려운 잘못된 관념, 아집, 사고의 오류 등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며 사고의 틀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겨울 수련회 집중 강좌는 유식(唯識)이며 그 중에서도 유식 30송을 다양한 경전들의 통섭을 통해 풀어낸다. 하루 9시간씩 삼일동안 총 24시간의 릴레이 강의를 준비 중인 오경 스님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어렵다는 유식을 그것도 사흘간 혼자 24시간강의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 중이라는 스님은 “이번 유식 30송 강의를 통해 존재의 실상에 대한 논리적, 체계적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식은 자연과학자, 인문학자, 사회학자 등 그 누구라도 우리를 둘러싼 대상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통섭하는 사상이므로 유식을 배워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어 나와 세상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면서 사고의 전환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4시간 릴레이 강의로 유식 30송 뜻 풀이해 존재의 실상 이해

특히 스님은 참선 중심적 사고 즉 직관적 사고와 서술에만 익숙해진 우리 불교의 현주소에 분석적, 논리적 유식불교를 보완하면 불교의 진정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 보경사는 이미 2012년, 2013년 두 차례 1박 2일 동안 증도가, 신심명을 집중 공부하는 여름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같은 경전 집중 강좌 수련회는 보경사 부



안동 보경사는 2월 7~9일 2박 3일 동안 24시간 릴레이 강의로 유식 30송 풀며 겨울 수련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수련회 장면.

설 정해학당 회원들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부산과 안동에서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이어오고 있는 재가 공부 모임인 정해학당 회원들은 그동안 금강경, 반야심경, 대승기신론 해동소, 원각경, 화엄경, 육조단경, 수심결 등 경전과 선어록 등을 꾸준히 공부해왔다.

매주 1회 진행되는 경전 강좌를 이어오면서 오경 스님의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강의에 매료되면서 경전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며 공부 재미에 빠져든 회원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수련회인 셈이다.

정해(正海)학당은 2009년 4월, 부산에서 처음 개원 이래 경전 공부, 참선 수행 등 배우고 익히는 수행도량의 기능을 강조하는 공부 모임으로 이어왔다. 이후 안동 보경사를 창

건하면서 안동 정해학당이 문을 열었고 이후 두 곳의 학당에서는 금강경, 반야심경, 대승기신론 해동소, 화엄경, 원각경 합해 등의 강의로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 내었고 참선 실수를 통해 선교일치의 가르침을 실현시켜 왔다. 또한, 오경 스님은 부산과 안동의 정해학당 경전 강의를 비롯 서울의 정해사, 대구, 대전 구도회에서 금강경을 강의 중이며 철학 전공자답게 논리적, 체계적, 철학적 강의로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다. 특히 일방적 강의를 자제하고 수강생들과 함께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며 함께 진리를 찾아, 자연스럽게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는 열린 강의로도 유명하다. (054)842-408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와 사랑 나눔

## 부산 대광명사 사무량심회

팔순의 김할아버지는 몇 년 전만 해도 다복한 가정에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빛보증으로 모든 재산을 다 날린 지금 할아버지는 알콜 중독과 우울증으로 폐인이 된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있다. 식사 준비 및 모든 것을 할 아버지가 맡아 하다 보니 집안은 엉망이다.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 사무량심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 했다. 사무량심회(회장 이해은)는 1월 28일 설명절을 앞두고 해운대 지역 경제적 어려움 독거노인과 조손 가정 90가구를 방문하며 쌀, 생필품 등 온정의 물품을 전달했다.

사무량심회 이순희 부회장은 “부처님 법을 배웠으면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멀리 쳐다 볼 필요 없이 가까운 내 이웃들을 돕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라는 가르침에 마음의 큰 울림이 있었다”며 사무량심회의 동참 사연을 전했다.

사무량심회는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은 불자들이 자비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무량심회는 1월 28일 설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 매월 2회 소외이웃에게 반찬·생필품 등 전달

만든 봉사단체다. 어느덧 창립 5년을 맞게 된 사무량심회는 매월 2회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째 주는 노인들의 건강과 영양보충을 위한 반찬도시락 배달, 셋째 주는 쌀·생필품 등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조사하던 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 사시는 어려운 노인들을 비껴간 복지정책 사각지대가 심각함을 파악하고 독거노인, 조손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노인들이 혼자 살다보니 밥보다 반찬이 빈약했

고, 영양불균형이 심각해서 사찰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선행이 사찰과 지역에 알려지면서 어느덧 후원 회비를 내는 봉사자와 후원자가 100여명을 넘어섰다. 또한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도 증가하고 있다. 이순희 부회장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려 놓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나누고 실천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자라나는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 나를 더욱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환한 웃음으로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몽골 前 대통령 금강경 번역 사업 추진

## 지안 스님과 문답 주고 받으며 강의

몽골 전 대통령이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의 몽골어 번역과 해설 등 불경연구를 위해 영축총림 통도사에 머물렀다. 남바린 영호야아르(57) 전 몽골대통령과 절명 여사는 1월 21일~27일까지 6박 7일간 통도사 반야암에 머물며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으로부터 직접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을 공부하는 인연을 맺었다.

강의는 주로 영어로 진행됐으며 남바린 영호야아르 전 대통령이 먼저 내용을 읽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지안 스님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부분 지안 스님이 직접 답했지만 정확한 전달을 위해 통도사 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덕상 스님과 한국에 온 지 5년 된 바트보양 몽골 스님

이 수업에 함께 참여해 통역했다. 하루 3차례 2시간씩 6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은 영호야아르 전 대통령의 학문적 열정으로 매번 예정된 시간을 넘기는 것이 예사였다. 지안 스님은 “오전 4시에 일어나 하루 세

### 6박 7일간 통도사 반야암서 하루 3차례 6시간 수업 세 차례 불공도 인상적

차례 불공을 올리고, 하루 이종식을 지키며 불경을 암송하는 모습은 여느 수행자 못지 않았다.”며 “경전 강의시간에는 세심하게 메모를 놓치지 않는 모습에 크게 탄복했다”고



남바린 영호야아르 전 몽골대통령과 절명 여사는 6박 7일간 통도사 반야암에 머물며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공부했다.

말했다. 남바린 영호야아르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이미 깊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대통령 재직시절인 2006년 포교부민 만해대상을 수상했으며, 티베트어와 고대몽골어로 된 경전을 몽골 젊은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금강경 번역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 12월 4일 서울 화계사를 찾기도 했다. 이번 지안 스님과 만남은 영

호야아르 전 대통령의 이같은 지극한 원력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남바린 영호야아르 전 대통령은 몽골인민혁명당 소속으로 2005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제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대통령에 앞서 문공부장관,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 주요 요직을 거처으며 현재도 몽골의 중요한 지도자 위치에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우리는 달리는 포교사다”

## 대구 정법호출택시 발대식

대구 도심 포교도량 한국불교대관음사와 불자 운전자 모임인 ‘정법호출택시’가 불교 포교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 정법호출은 1월 28일 한국불교대관음사에서 유병욱 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신행단체로 포교발대식을 가졌다.

회원들은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의 포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승객들에게 전하는데 달리는 포교사로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대관음사 주지 밀허 스님은 “택시 한 대가 하나의 달리는 법당이고, 운전자 한사람이 한명의 법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해 달라”며 “부처님 공부와 함께 행복하면서 청정하고 맑은 사회와 국가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대구 정법호출택시는 1월 28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포교발대식을 가졌다.

### 한국불교대 신행단체로 운전자 한 명의 법사 “불법 전파 다짐”

임미화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신도회장도 “달리는 법당의 포교사로 250만 대구시민이 불국토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가 포교전선에 나서

는 선주자가 되어 불국토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한편, 정법호출택시는 유병욱 회장 외, 현재 330여 명의 회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불교포교와 봉사활동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의 위상과 ‘우리는 달리는 포교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을 펼친 근현대 선사 6인의 생생한 범거량 해설**  
한국 불교의 중흥조인 경허대사와 수월·만공·해월·한암·용성선사의 사자후!

경허대사와 5대 제자 **이wert고 선지식 총서 ①**  
**콧구멍 없는 소** 김성우 엮음 | 46판 | 218쪽 | 11,000원

보이는 물질이 곧 해인海印이요 들리는 소리가 곧 장경藏經이로다!  
“눈뜨고 세상을 보니 우주와 내가 바로 禪” 우리 시대의 大人 성수 큰스님이 남긴 선문답과 법문

성수 대종사 선어록 **이wert고 선지식 총서 ②**  
**세상선世上禪 산수도山水道** 김성우 엮음 | 46판 | 319쪽 | 12,000원

“전인 미답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화두, 간경, 염불, 보현행원 등 통불교적 수행으로 최상승선 깨닫게 한 정일선사의 사자후!

정일선사 선어록 **이wert고 선지식 총서 ③**  
**전인 미답지를 일러주마** 정일선사법어집편찬위원회 엮음 | 46판 | 219쪽 | 11,000원

나고 죽는 이전의 이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을 묻는 근본 질문, “어디서 왔소?”  
일상의 선문답으로 自性を 깨닫게 하는 송광사 천지암 조실 활안 큰스님의 사자후!

활안큰스님의 禪법어집 **이wert고 선지식 총서 ④**  
**어디서 왔소?** 김성우 엮음 | 46판 | 309쪽 | 12,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hia5@daum.net

**사찰 연등 및 전선(범광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합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치구 28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 DWKS-3000

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광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회색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면(오염저지) 진분용 백색 인분용

▶ 인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노면 진분용 백색 인분용

이후 밝은 건전지 초(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 방생, 탈피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